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
	안용섭 전화: 031-888-9055, 이메일: aws6912@snu.ac.kr

배포일: 2024.12.20.(금)

미래 모빌리티의 중심,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 비전 2.0으로 도약

- 서울대학교 · 경기도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(원장 차석원, 이하 융기원)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한국정보과학회가 주관한 ‘2024 한국소프트웨어 종합학술대회(KSC2024)’ 에서 ‘경기도자율주행센터 비전 2.0 및 성과공유’ 를 주제로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.
- 이번 워크숍은 2019년 설립된 경기도자율주행센터의 지난 6년간 성과를 돌아보고,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18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.
-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설립 이후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며 기업 실증지원 740건, 국제 논문 20건, 특허 27건, 법·제도 개선 17건 등의 성과를 거두며 판교 자율주행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.
- 강용신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센터의 비전 2.0을 발표하며, 자율주행 기술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.

- 비전 2.0은 R&D 기능 강화, 통합관제플랫폼 개방, 드론·스마트물류·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영역 확대, 자율주행차 유상여객운송, 전문 인력양성 등으로 구성되며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넘어 선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.
- 이어진 입주 기업 발표에서는 시티아이랩, 모빌위더스, 디바인테크놀로지 등 센터가 발굴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AI 영상 분석 기반 신호 최적화, 미래차 보안, 자율주행 시험평가 등 기술성과를 발표하고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.
- 융기원이 참여한 발표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센서 교정 공간 구축(이동근 전임), CCTV 기반 교통정보 데이터 시각화(이형준 전임), Fuzzy AHP를 활용한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우선순위 도출(오경택 전임) 등 주요 연구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.
- 강용신 센터장은 “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과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‘판교G버스’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현실로 구현해왔다”며 “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 융기원은 2008년 개원 후 2018년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 됐으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 사업, 경기도 반도체 육성지원 사업,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사업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차석원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.